

머 리 말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영웅적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이 일제 기반에서 해방되어, 자기의 언어와 문'자를 자유롭이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우리는 우리의 어문을 더한층 통달 발전시키르 온갖 방책을 장구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에 북 조선 인민 위원회는 1947년 2월 5일에 제 175 호 결정으로써 조선 어문 연구회를 조직하고, 이 연구회 전문'연구 위원들에게 철자 문제, 한'자 문제, 회서 문'본'으로 조선 어문의 현재와 장래를 위하여, 반드시 ~~한~~ 오'자'를 할 절실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이 결정은 ~~한~~ 철자법 제정 사업에 걸기한 "조선 어문 '연구회" 전문 연구 위원들은 우리 ~~한~~ 진'본'의 학자들이 30 여년에 걸쳐서 이루어 놓은 학적 성과를 토대로 하고, 이에 심각한 연구와 엄격한 비판을 거듭한 결과, 일단 성'함을 얻어 1948년 1월 15일에 "조선어 신철자법" 을 사회에 발표하였다. 그 후 수집화에 걸친다 각종 학술적 회합에서 각지 인사들의 토의 검토에 붙이였으며, 특히 1948년 10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제 10 호 결'정서에 의하여, 남조선으로부터 래'출한 어학자들도 망'라하여 조선 어문 연구회가 재 조직되자, 1949년 7월 26 일에는 전체 위원이 다시 "조선어 신철자법" 을 검토하여 그곳에 기본적으로 그곳편이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조선의 신필자법”은 언어와 문’자의 본질적인 ‘자법’에 밀착하여, 방법으로는 남 조선 조선어 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대한 비판 검토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떨지 않은 장태에 조선어문의 말’전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한’자 문제와 ‘한’자 기원(풀이서, 가로 쓰기)을 예견하는 점에서도 부러울 것이 없다.

그런데 인정한 의미론, 가치론, 남달은 언제나 고
정적으로 표시하고, 문’자로 하여금 의사 표시의
도구로 삼게 하는 형식주의 열광 살아, 종
택의 필자법에 적지 않은 필동을 되었다.
그렇나 이는 근본이 우주한 우리 더욱 말
결사키여 그 ‘자’를 남기口 없이 나라에게 하기 위하
려는 반드시 필요한 필력이었다.

이제 “조선어 신필자법”을 간행하면서, 첫째 인민어
표준의 글과 말’기를 위하여, 자기의 언어와 문’자를 사
랑하여 연구 비판하는 사업을 더한층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1950년 4월 15일

조선어문 연구회

朝鮮語 新綴字法

內 容

머리말

總 論..... (1)

各 論..... (2)

第 1 章 章 字 母..... (2)

第 1 節 字母의 數와 그 順序..... (2)

第 2 節 字母의 位置..... (2)

第 2 章 語音의 關係 및..... (3)

第 1 節 吳舌音..... (3)

第 2 節 舌側音 “ㄹ”..... (4)

第 3 節 口蓋音化..... (4)

第 4 節 末音 表記..... (5)

第 5 節 半母音 “1”..... (6)

第 3 章 文法에 關係 및..... (7)

第 1 節 體言의 語幹과 ㅁ..... (7)

第 2 節 用言의 語幹과 ㅁ..... (8)

第 3 節 動詞의 被動形과 使役形..... (10)

第 4 節 所謂 變格 用言의 處理..... (11)

第 5 節 받치口 (18)

第 6 節 原形 表示 (22)

第 7 節 品詞 合成 (32)

第 8 節 原詞斗 接頭辭 (36)

第 4 章 語彙에 關한 것 (37)

第 1 節 漢字語 (37)

第 2 節 略語 (44)

第 3 節 摺準語 (47)

第 4 節 外來語 (52)

第 5 章 文章에 關한 것 (52)

第 1 節 띄어 쓰기 (52)

第 2 節 符號 (53)

朝鮮語文 硏究會

朝鮮語 新綴字法

總 論

1. 朝鮮語 綴字法은 現代 朝鮮 人民의 音韻 意識 가운데에 共通的으로 把握할 수 있는 것은 一定한 形態로 發記함으로써 原則을 守는다.
2. 朝鮮語 綴字法은 그 發記에 있어 一般 語音學의 原理에 依據하되 朝鮮 固有의 發音上의 語規則을 尊重한다.
3. 文章의 原語는 原則的으로 各各 許여 遵다.
4. 標準語는 朝鮮 人民 사이에 使用되는 共通性이 가장 많은 現代語 가운데서 이를 定한다.
5. 모든 文章는 縱으로 讀히 오면 橫으로 讀히 橫書함으로써 原則을 守는다.

註. "하음"은 [하으], "터음"은 [터으], "시음"은 [시으],
"하음"은 [하으], "우음"은 [우으]이라發音한다.

第 2 章 語音에 關한 것

第 1 節 唇 音 母

第 3 項. 한 單語 안의 各 音節 사이에서 아무것이 없거나
는 發音되는 各 音節의 發音을 發音으로 發音한다.
例: (甲을 取하고 그를 먹습니다.)

| 甲 | 乙 |
|-----------|------|
| 거구모 (例) | 것구모 |
| 부 석 (突進靚) | 붓 석 |
| 소적새 (杜鵑) | 숫적새 |
| 모 기 (盟) | 몹 기 |
| 젓속하다 (若白) | 젓속하다 |
| 젓갓하다 (額) | 젓갓하다 |
| 어 제 (爾) | 엇 제 |
| 어머하다 (如何) | 엇머하다 |
| 어 쟁 (何) | 엇 쟁 |
| 어주다 (稟) | 엇주다 |
| 오 락 (男兒) | 옴 락 |
| 오 름 (元) | 옴 름 |
| 이따갈 (往徃) | 엇따갈 |

| | |
|-------------|-------|
| 활 이 (活一活) | 가 치 |
| 말 이 (末一末) | 바 치 |
| 끝 이 (末一末) | 크 치 |
| 말 이 다 (使一抵) | 말 치 다 |
| 긴 히 다 (假一捲) | 거 치 다 |
| 덜 히 다 (徐一困) | 다 치 다 |
| 몰 히 다 (被一埋) | 무 치 다 |

第 4 節 末音 發音

第 6 項. ㅁ, ㅂ, ㅅ, ㅈ;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ㅍ, ㅍ; ㄱ, ㅋ, ㆁ 等의 音이 末音으로 發音되거나 또는 末音으로 發音되고 그 다음에 連發되지 않는 다른 音이 온 時에 各 各 (ㅁ), (ㅂ), (ㅅ) 等 發音되더라도 그 原形에 따라 發音되기를 止하여 發音된다. ㅁ로 發音되면서도 原形을 發音할 수 없는 것은 ㅁ으로 發音된다.

1) ㅁ로 發音되면서도 ㅁ, ㅂ, ㅅ, ㅈ으로 發音되는 例:

| | |
|----------|-----------|
| 밥 (飯) | 밥상 (飯床) |
| 무릎 (膝) | 무릎아래 (膝下) |
| 아름답다 (美) | 순다 (品) |
| 값 (價) | 값없다 (無價) |

2) ㅂ로 發音되면서도 ㅂ, ㅅ, ㅈ, ㅊ, ㅌ, ㅍ, ㅍ, ㅍ으로 發音되는 例:

| | |
|-------|---------|
| 곧 (即) | |
| 팥 (豆) | 팥알 (豆粒) |

웃 (泣)

겉다 (紗)

깃다 (膏)

깃 (氣)

꽃 (指)

웃안 (衣內)

깃어미 (氣母)

꽃아미 (指下)

2) ㄱ로 發音되던 ㅅ으로 ㄱ, ㅅ, ㅈ, ㅊ으로 改는 例:

속 (裡)

부엌 (廚)

밖 (外)

넋 (魂)

속옷 (內衣)

부엌안 (廚內)

넋없다 (無魂)

ㅕ로 發音되던 ㅅ으로 ㅅ으로

덧대고리 (加上衣)

깃발따 (縣副)

깃박다 (踏錯)

웃이론 (尊長)]

웃 (衆)

웃 (虛)

웃 (誤)

웃 (無碍)

改는 例:

덧나가다 (移往)]

웃옷 (厚綿衣)

웃쟁 (相侵食計)]

웃 (初)

웃 (凡)

웃 (快遞)

웃 (少遊題)

웃 (無碍)

第 5 節 半母音 1

第 7 項. 用音의 發音의 末音인 “ㄱ” 音中에 다음에 發音되
는 ㅅ을 ㅅ으로 改하여 發音節을 이루는 것은 半母音이므로 이문 1 字로 改는다.

1) 母音ㅏ 1로 적어야 하는 例:

| | | | |
|-----------|-----|-----|------|
| 견다 (飢) | 견고 | 견어 | 견었다 |
| 치다 (打) | 치고 | 치어 | 치었다 |
| 비격다 (鎗) | 비격고 | 비격어 | 비격었다 |
| 스미다 (滌) | 스미고 | 스미어 | 스미었다 |
| 하비다 (撥) | 하비고 | 하비어 | 하비었다 |
| 오서다 (穿) | 오서고 | 오서어 | 오서었다 |
| 가지다 (持) | 가지고 | 가지어 | 가지었다 |
| 고치다 (改) | 고치고 | 고치어 | 고치었다 |
| 말려다 (使一明) | 말리고 | 말리어 | 말려었다 |

2) 母音ㅓ "1"로 적어야 하는 例:

| | | | |
|-----------|-----|-----|------|
| 기다 (飢) | 기고 | 기어 | 기었다 |
| 아니다 (謫) | 아니고 | 아니어 | 아니었다 |
| 미다 (破裂窓紙) | 미고 | 미어 | 미었다 |
| 시다 (酸) | 시고 | 시어 | 시었다 |
| 피다 (發) | 피고 | 피어 | 피었다 |
| 떡다 (飭) | 떡고 | 떡어 | 떡었다 |
| 떡다 (響) | 떡고 | 떡어 | 떡었다 |

第 3 章 文法에 關한 項

第 1 節 體言의 語幹과 ㅏ

第 3 項. 體言의 語幹과 ㅏ 이우들 적어는 소리가 變하되
나 아니 하거나를 勿論하고 다 제 原形을 밝히어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비취는 例.)

| 甲 | | | 乙 | | |
|-----|-----|---------|-----|-----|-----|
| 집이 | 집을 | 집에 (家) | 지비 | 지분을 | 지배 |
| 값이 | 값을 | 값에 (價) | 지피 | 지분을 | 지배 |
| 값이 | 값을 | 값에 (價) | 잡지 | 잡을 | 잡다 |
| 말이 | 말을 | 말에 (馬) | 마지 | 마를 | 마비 |
| 팥이 | 팥을 | 팥에 (豆) | 마치 | 마를 | 마비 |
| 옷이 | 옷을 | 옷에 (衣) | 오지 | 오를 | 오지 |
| 낫이 | 낫을 | 낫에 (鎊) | 나지 | 나를 | 나지 |
| 꽃이 | 꽃을 | 꽃에 (花) | 고지 | 고를 | 고지 |
| 머이 | 머을 | 머에 (髻) | 머기 | 머를 | 머기 |
| 부엌이 | 부엌을 | 부엌에 (厨) | 부이기 | 부이를 | 부이기 |
| 밖이 | 밖을 | 밖에 (外) | 바끼 | 바를 | 바끼 |
| 값이 | 값을 | 값에 (價) | 삭지 | 삭을 | 삭지 |
| 밤이 | 밤을 | 밤에 (夜) | 바끼 | 바를 | 바끼 |
| 손이 | 손을 | 손에 (手) | 소지 | 소를 | 소지 |
| 콩이 | 콩을 | 콩에 (豆) | — | — | — |
| 팔이 | 팔을 | 팔에 (腕) | 파끼 | 파를 | 파끼 |

第 2 節 用言의 綴接과 도

第 9 項. 用言의 語幹과 도는 區別이 어 지는지 錄:

| | | | |
|----|----|----|---------|
| 잡다 | 잡고 | 잡아 | 잡으니 (撰) |
| 값다 | 값고 | 값이 | 값으니 (撰) |
| 근다 | 근고 | 근아 | 근니 (撰) |

| | | | |
|----|----|----|---------|
| 없다 | 없고 | 없어 | 없으니 (無) |
| 없다 | 없고 | 없어 | 없으니 (無) |
| 갈다 | 갈고 | 갈아 | 갈으니 (同) |
| 웃다 | 웃고 | 웃어 | 웃으니 (笑) |
| 싶다 | 싶고 | 싶어 | 싶으니 (望) |
| 있다 | 있고 | 있어 | 있으니 (有) |
| 찾다 | 찾고 | 찾아 | 찾으니 (尋) |
| 꽃다 | 꽃고 | 꽃아 | 꽃으니 (從) |
| 먹다 | 먹고 | 먹어 | 먹으니 (食) |
| 잡다 | 잡고 | 잡아 | 잡으니 (捕) |
| 병다 | 병고 | 병어 | 병이니 (入) |
| 꿈다 | 꿈고 | 꿈어 | 꿈이니 (作) |
| 넌다 | 넌고 | 넌어 | 넌으니 (說) |
| 죄다 | 죄고 | 죄어 | 죄으니 (說) |
| 술다 | 술고 | 술어 | 술이니 (啗) |

(附註) 다음과 같은 발음은 오로지 같은 音韻 聲韻에 비추어
 아예와 같이 가락 지는다. 例:

(1) 語幹과 語尾 區別하여 적을 것.

| | |
|-------|------|
| 날아가다 | (越) |
| 늘어지다 | (越) |
| 문어가다 | (假輕) |
| 들어가다 | (入) |
| 붉어지다 | (赤紅) |
| 배고 먹다 | (乞食) |

- 흩어지다 (分散)
- (떨어) 버리다 (拂)
- 떨어지다 (落)
- 쓸어 버리다 (掃)
- 있어지다 (置)
- 알어나다 (爬)

2) 語幹과 모음 區別하여 적지 않다 할 것

- 나타 다. (現)
- 넘어지다 (倒)
- 느러지다 (怠)
- 또박가다 (歸, 死亡)
- 마개지다 (拆)
- 비벼먹다 (乞食)
- 꾸러지다 (折)
- 물거지다 (凸)
- 자빠지다 (沾)
- 쓰러지다 (踞)

第 8 節 動詞의 被動形과 使役形

第10項. 動詞의 語幹 아래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被動이나 使役으로 된 것은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 하거나를 說明하거나 하고 마오 原形을 밝히어 놓는다. 例: (甲을 取되오 乙을 버리나다.)

| 甲 | | 乙 |
|------|---------|------|
| 맡기다 | (使一任) | 맡기다 |
| 옮기다 | (使一移) | 옮기다 |
| 웃기다 | (使一笑) | 웃기다 |
| 춧구다 | (使一難) | 춧구다 |
| 들터마 | (被一穿) | 들터다 |
| 술터다 | (使一嗜) | 술터다 |
| 닫히다 | (被一閉) | 닫히다 |
| 박히다 | (被一印刷) | 박히다 |
| 잡히다 | (被,使一犯) | 잡히다 |
| 얹히다 | (使一坐) | 얹히다 |
| 할으키다 | (使一起) | 할으키다 |
| 물으키다 | (使一圓) | 물으키다 |
| 뜰우다 | (使一圓) | 뜰우다 |
| 낚아다 | (被一釣) | 낚아다 |
| 박이다 | (使一印刷) | 박이다 |
| 활이다 | (被,使一紙) | 활이다 |
| 짜이루 | (被一截) | 짜이루 |

第 4 節 所謂 變格 用語의 處理

第 11 項: 從來의 所謂 變格 用語는 다음과 같이 表記한다.
 (1) 從來의 “ㄱ, 變格 用語”는 ㄱ 子母의 使用에 規則的으로 된다. ㄱ 子母는 舌端 半韻音 “[k]”으로서 朝鮮語에 있어 ㄱ 과 비슷하게 發音되나 “ㄴ, ㄷ, ㄹ, ㅁ, ㅇ”

앞에 있는 發音까지 앞으므로 “중”은 [ㄹ] 이다는 이론도 가지고 있다. 例.

| | | | | |
|--------|----|------|-----|----|
| 중다 (中) | 중다 | 중고 | 중지 | 중면 |
| | 중니 | 중비니다 | 중시니 | 중오 |
| 중다 (遊) | 중다 | 중고 | 중지 | 중면 |
| | 중니 | 중비니다 | 중시니 | 중오 |
| 중다 (長) | 중다 | 중고 | 중지 | 중면 |
| | 중니 | 중비니다 | 중시니 | 중오 |
| 중다 (次) | 중다 | 중고 | 중지 | 중면 |
| | 중니 | 중비니다 | 중시니 | 중오 |

(2) 從來의 “스 變格 用字”은 ㅅ 字母의 使用으로 만기할아 規則的으로 된다. ㅅ 字母는 變格 發音 [ʃ] 또는 朝鮮語에 있어 다음에 오는 子音을 뒤져 내지 하지(ㄱ, ㄷ, ㅌ, ㅍ)는, ㅅ, ㅆ) “ㄴ, ㄹ, ㄹ, ㄹ, ㅅ” 앞에 지나 母音과 母音 사이에서는 發音되지 않는다. (但, ㄴ, ㄹ, ㄹ, ㄹ, ㅅ냐? ㄴ냐? ㄹ냐? ㄹ냐? 위에서는 (ㄴ)와 같이 發音된다) 例:

| | | | | |
|--------|----|------|-----|------|
| 중다 (中) | 중다 | 중고 | 중소 | 중지 |
| | 중니 | 중리 | 중면 | 중비니다 |
| | 중이 | 중오 | 중십니 | 중누 |
| | 중대 | 중느냐? | 중니? | 중나? |
| 중다 (遊) | 중다 | 중고 | 중지 | 중면 |
| | 중니 | 중리 | 중면 | 중비니다 |
| | 중이 | 중오 | 중십니 | 중누 |
| | 중대 | 중느냐? | 중니? | 중나? |

| | | | | |
|--------|----|------|-----|------|
| 경다 (作) | 경다 | 경고 | 경소 | 경지 |
| | 경너 | 경르 | 경편 | 경비너다 |
| | 경이 | 경오 | 경선너 | 경논 |
| | 경내 | 경느냐? | 경너? | 경나? |
| 왕다 (價) | 왕다 | 왕고 | 왕소 | 왕지 |
| | 왕너 | 왕르 | 왕편 | 왕비너다 |
| | 왕이 | 왕오 | 왕선너 | 왕논 |
| | 왕내 | 왕느냐? | 왕너? | 왕나? |

(3) 從來의 “동 動格 用言”은 어떠한 모 母에서나 동 動 詞 尾 使用 法으로 만미 變 化 規則的으로 轉 化. 例:

| | | | |
|-------------|-----|-----|-----|
| 하왕다 (白) | 하왕다 | 하왕고 | 하왕지 |
| | 하왕너 | 하왕르 | 하왕편 |
| 어떻다 (如何) | 어떻다 | 어떻고 | 어떻지 |
| | 어떻너 | 어떻르 | 어떻편 |
| [參考] 좋다 (好) | 좋다 | 좋고 | 좋지 |
| | 좋너 | 좋르 | 좋편 |

(4) 從來의 “ㄷ 聲格 用言”은 ㅈ 字母의 使用으로 만미 變 化 規則的으로 轉 化. ㅈ 字母는 有隣 舌端 摩擦音 [ʃ]로서 朝鮮語에 있어 다른 子音 앞에서 [ㅈ]과 비슷하게 母音과 母音, 母音과 “리” 사이에서는 [ㄷ]과 비슷하게 轉 化된다. 例:

| | | | | |
|--------|----|----|-----|-----|
| 경다 (步) | 경고 | 경어 | 경느니 | 경러다 |
| 싫다 (載) | 싫고 | 싫어 | 싫느니 | 싫러다 |
| 듣다 (聽) | 듣고 | 듣어 | 듣느니 | 듣러다 |

경다 (敬) 붓고 붓어 붓으니 붓려다

(2) 前來의 "ㄹ 變格 用言"은 ㄹ 字母의 活用으로 變格의 規則的으로 行다. ㄹ 字母는 兩階 廢接音 [W]로 有 動接音과 有어 同位置의 破接音 [P]와 같이 發音되고 "ㄴ, ㄹ, ㄷ, ㅂ, ㅅ"나 母音을 頭音으로 하는 有어 廢接音 [W]로 廢音되다. (但, "는, 네, 드냐? 너? 피? ㅅ" 위치에는 [P]와 같이 發音되다.) 例:

경다 (敬) 경다 경고 경니 경르
 경면 경버니다 경지니 —
 경아 경오 경는 경네
 경소 경느냐? 경니? 경나?
 경다 (敬)

경다 (敬) 경다 경고 경니 경르
 경면 경버니다 경지니 경소세
 경어 경오 경는 경네
 경소 경느냐? 경니? 경나?
 경다 (敬)

경다 (敬) 경다 경고 경니 경르
 경면 경버니다 경지니 경소세
 경아 경오 경는 경네
 경소 경느냐? 경니? 경나?

(3) 前來의 "어 變格 用言"은 이물 그대로 認定하나 第5節의 "認定" 依하여 "變格"은 아니다. 例:

하어 (爲) 하어 하였으니 하였다
 유하어 (爲) 유하어 유하였으니 유하였다
 일하어 (爲) 일하어 일하였으니 일하였다

작하다 (了聲) 작하여 작하였고와 작하였따

〔7〕 聲母의 “母韻格 用聲”은 다음과 같이 發聲한다. 例:

이물다 (頭) 이물어 이물었다

누물다 (黃) 누물어 누물었다

푸물다 (靑) 푸물다 푸물었다

〔附註〕 聲母의 發聲 “ㄷ”은 “ㄴ, ㄹ, ㄱ, ㅋ” 以外の 子音 聲에 對해서도 다니 發聲 때가 있으나 (이르다, 이르코) “ㅍ” 聲 내은 것을 原因으로 삼는다.

〔8〕 聲母의 “母韻格 用聲”은 “一” 소리의 發聲 規則을 總로 遵守으로 할 때 規則의 規則으로 된다.

이 때 聲母 “ㄷ” (전혀 發聲하다……) 發聲에 已 字 發聲 規則을 따른다. 例 字 聲은 音例聲 [1] 이다. 例:

가르다 (分) 가르다 가르니 가르지

가파 가팠다 가피다

거르다 (施) 거르다 거르니 거르지

거피 거뒀다 거피다

구르다 (歷) 구르다 구르니 구르지

구피 구뒀다 구피다

〔附註 1〕 “一” 소리의 發聲 規則 = “一” 소리는 그 發聲 時의 發聲 點의 形狀이 되는 自然한 軌道에 있고, 發은 거의 곧 直線으로 되는 까닭에 이따한 母音을 發聲할 때 發은 聲이 發聲 點의 形狀을 그 始發點으로 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렇므로, “一” 소리 다음에 이따한 다른 母音이 오르면 그 사이에 時間的 間隔이 있기 前에는 따로 나지 않는다.

○ 발치

| | | |
|---------|---------|----------|
| 인다 (因) | 영다 (榮) | 용다 (用) |
| 인다 (幸) | 인다 (慘) | 영다 (影) |
| 송다 (送) | 영다 (芳) | 아름다 (美) |
| 값 (價) | 기값 (價) | 먹값 (價) |
| 부값 (不實) | 상값 (相實) | 서름값 (蘇亮) |
| 값 (不實) | 값 (價) | 영값 (小價) |

○ 발치

| | | |
|--------|--------|--------|
| 골 (助) | 난 (穀) | 란 (昆) |
| 전다 (捲) | 골다 (商) | 골다 (國) |
| 달다 (打) | 돌다 (擧) | 골다 (藥) |
| 돌다 (埋) | 밀다 (計) | 받다 (受) |
| 범다 (延) | 뜰다 (摘) | 멜다 (京) |
| 알다 (渴) | 얼다 (得) | |

○ 발치

| | | |
|-----------|-----------|--------|
| 촌 (表) | 견 (俛) | 끝 (末) |
| 남 (隔) | 미외담 (柳邊) | 몸 (身) |
| 필 (送) | 밭 (用) | 빈 (歸) |
| 갈 (間股) | 술 (鼎) | 술 (系) |
| 굴 (豆) | 종 (單) | 갈다 (岡) |
| 말다 (任, 喚) | 말다 (酒, 臨) | 말다 (吐) |
| 쓰물다 (凝) | 물다 (竹) | 말다 (讀) |
| 얼다 (戔) | 걸다 (發) | 술다 (散) |

○ 발치

| | | |
|-------|---------|--------|
| 조 (釣) | 낚 (錄) | 웃 (救) |
| 깃 (股) | 깃 (條) | 깃 (杖) |
| 걸 (步) | 걸 (編) | 걸 (混) |
| 타 (梅) | 타달다 (臨) | 달다 (走) |

△ 발치

| | | | |
|--------|---------------|----------|----------|
| | 들다 (擲) | 묻다 (問) | 붙다 (殖) |
| | 싫다 (載) | 거달다 (覓) | 일컫다 (稱) |
| ㄷ 받침 ㅁ | -질다 (未來) | -었다 (過去) | -었다 (過去) |
| | -었다 (過去) | 있다 (有) | |
| ㄷ 받침 ㅂ | 빚 (債) | 빚 (債) | 젖 (乳) |
| | 갓다 (備) | 꽂다 (插) | 구갓다 (叱) |
| | 갓다 (圍) | 낮다 (低) | 늦다 (晚) |
| | 맞다 (迎, 適, 被打) | | 맺다 (結) |
| | 비틀다 (爬) | 부르짖다 (叫) | 밷다 (釀) |
| | 애꿎다 (不幸) | 잊다 (忘) | 잣다 (頸) |
| | 젓다 (後傾) | 젓다 (潤) | 젓다 (濕) |
| | 젓다 (後傾) | 쪼다 (裂) | 쪼다 (尋) |
| ㄷ 받침 ㅅ | 갓 (皮膚) | 꽃 (花) | 낯 (面) |
| | 맞 (錨) | 짚 (捕獸器) | 돛 (帆) |
| | 밷 (幾) | 빛 (色, 光) | 숯 (炭) |
| | 술 (酒) | 좃다 (從) | 쫓다 (逐) |
| ㅁ 받침 ㅁ | 죽 (藥) | 죽 (錯) | 떡 (餅) |
| | 막다 (防) | 먹다 (食) | 썩다 (腐) |
| ㄷ 받침 ㅁ | 널 (頃) | 부엌 (廚) | |
| ㅂ 받침 ㅁ | 밖 (外) | 깎다 (削) | 꺾다 (折) |
| | 꺾다 (經) | 낚다 (釣) | 닦다 (拭) |
| | 덧다 (添垢) | 들다 (束) | 볶다 (炒) |
| | 섞다 (混) | 쪼다 (抄) | 엮다 (編) |
| ㄷ 받침 ㅁ | 뉘 (魂) | 몫 (配分) | 값 (賃) |

| | | | | |
|-------|--------|----------|---------|-------|
| 중 받치口 | 값다(價) | 당다(當) | 농다(産) | 넣다(入) |
| | 놓다(放) | 닿다(接) | 둥글얼다(圓) | 쌓다(積) |
| | 말다(辯) | 말다(碎) | 끼다(積) | 키다(大) |
| | 좋다(好) | 짚다(搗) | 붓다(注) | 흔다(拾) |
| ㄱ 받치口 | 증다(證) | 냥다(養, 優) | 흔다(注) | 일다(續) |
| | 창다(紡) | 잡다(攪) | 흔다(拾) | 갈다(轉) |
| | 장다(作) | 영보다(窺視) | 일다(續) | 놀다(遊) |
| ㄴ 받치口 | 갈다(耕) | 걸다(掛, 沃) | 갈다(轉) | 돌다(擧) |
| | 길다(長) | 날다(飛) | 놀다(遊) | 돌다(擧) |
| | 달다(甘) | 돌다(回) | 돌다(擧) | 물다(噴) |
| | 말다(意) | 돌다(逐) | 물다(噴) | 알다(知) |
| | 말다(儲) | 불다(吹) | 알다(知) | 물(水) |
| ㄷ 받치口 | 걸(路) | 돌(石) | 물(水) | |
| ㄹ 받치口 | 여덟(八) | | | |
| | 넓다(廣) | 밟다(踏) | 짧다(短) | |
| ㄺ 받치口 | 술다(詠) | | | |
| ㄻ 받치口 | 기승(籠) | 닭(鷄) | 흙(土) | |
| | 맑다(淸) | 엮다(縛) | 읽다(讀) | |
| ㄼ 받치口 | 잡다(紙) | 출다(挾扱) | 출다(挾扱) | |
| ㄽ 받치口 | 쪽(向方) | 돌(碁) | 음(代價) | |
| ㄾ 받치口 | 끓다(宋漚) | 굽다(跪) | 끓다(沸) | |
| ㄿ 받치口 | 들다(耗) | 뚫다(穿) | 실다(厭) | |
| | 줄다(精米) | 알다(病) | 올(可) | |
| | 잃다(失) | | | |

日 ヲ

| 例 (意味) | 表 記 | 發 音 | 表 記 | 發 音 |
|--------|-----|-------|-----|-------|
| 日一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 日一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 日一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 日一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入 又 又

| 例 (意味) | 表 記 | 發 音 | 表 記 | 發 音 |
|--------|-----|-------|-----|-------|
| 日一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 日一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 日一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 日一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 日一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入

| 例 (意味) | 表 記 | 發 音 | 表 記 | 發 音 |
|--------|-----|-------|-----|-------|
| 日一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 日一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 日一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 日一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日 日] |

ㄷ ㅌ ㄴ

| 例(意味)表記 | 發音表記 | 發音表記 | 發音表記 | 發音表記 |
|----------------|----------|------------|------|------|
| 물 (塊) 물 고 [물고] | 물 이 [무리] | 물 으니 [무르니] | | |
| 물 (間) 물 고 [물고] | 물 이 [무리] | 물 으니 [무르니] | | |
| 물 (咬) 물 고 [물고] | 물 이 [무리] | 물 니 [구니] | | |

ㄹ ㄴ

| 例(意味) | 表記 | 發音 | 表記 | 發音 |
|-------|---------|-------|-----------|--------|
| 물 (水) | 물 가 (邊) | [물 가] | 물 소 (水牛) | [물 소] |
| 물 (咬) | 물 리 가 ? | [물 가] | 물 느 (명령토) | [무 소] |
| 물 (火) | 물 가 (邊) | [물 가] | 물 나니 (出) | [부 나니] |
| 물 (吹) | 물 리 가 ? | [물 가] | 물 나니 (르) | [부 나니] |
| 가 (行) | 가 니 | [가 니] | 가 고 | [가 고] |
| 갈 (耕) | 갈 니 | [가 니] | 갈 고 | [갈 고] |

第 6 節 原形 表示

第 13 項. 用高의 語根에 “이”가 붙어서 名詞나 副詞로 된 것, “으”이 붙어서 副詞로 된 것, “으, 음, 으, 임”이 붙어서 名詞로 된 것은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 하거나를 勿論하고 그 語根의 原形을 밝히여 지는다. 例:

(1) “이”가 붙어서 名詞로 된 것

걸음걸이 (步調) 굵이 (燒) 길이 (長)

| | | |
|----------|-----------|-------------------------|
| 높이 (高) | 다듬이 (磨機) | 령이 (梁) |
| 맞이 (迎) | 먹이 (食料) | 미닫이 (推窓) |
| 뜰이 (勞得) | 비총이 (稻拔機) | 살결 ^ㅁ 살이 (生活) |
| 손잡이 (手把) | 쇠붙이 (金屬) | 송이 (窓) |
| 풀이 (解) | 햇돌이 (日出) | 땀받이 (汗受衣) |

(2) “이”가 붙어서 副詞로 된 것

| | | |
|----------------------|-----------------------|------------------------|
| 가짜이 (近) | 게으르 ^ㅁ (怠) | 꿈이 (魔) |
| 깊이 (深) | 갈이 (氷) | 다미 (異) |
| 많이 (多) | 새롭 ^ㅁ 이 (新) | 실없 ^ㅁ 이 (不實) |
| 적 ^ㅁ 이 (少) | 좋 ^ㅁ 이 (好) | 따르 ^ㅁ (隨) |

(3) “웃”이 붙어서 副詞로 된 것

| | |
|-----------|-----------|
| 검웃검웃 (黠黑) | 붉웃붉웃 (靨紅) |
| 육웃육웃 (肉曲) | |

(4) “ㅁ, 음, 엄, 암”이 붙어서 名詞로 된 것

| | | |
|---------|--------------------|---------------------|
| 걸음 (步) | 돕 ^ㅁ (助) | 말뼉 ^ㅁ (支) |
| 죽음 (眠) | 죽음 (死) | 죽값음 (報勞) |
| 얼음 (氷) | 엮음 (編) | 울음 (啼) |
| 뜰엄 (墳) | 죽엄 (屍) | |
| 막암 (決算) | | |

第 14 項. 用音의 語根에 “이, 웃, ㅁ, 음, 엄, 암” 以外의 ㅁ이 붙어서 他詞로 轉成한 것은 그 語根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 한다. 例:

(1) 名詞로 된 것

| | | |
|----------|--------|---------|
| 귀머거리 (聾) | 마개 (栓) | 마중 (迎接) |
|----------|--------|---------|

물김이 (紅草) 비탕행이 (乞者) 코뿌리 (鼻木)

까마귀 (鳥) 뜨더귀 (裂) 쓰레귀 (塵芥)

(2) 副詞로 변한 것

너무 (過) 도로 (反) 마투 (接近)

시로초 (始) 자주 (頻) 드림드림 (攝取)

第 15 項. 名詞의 語根 아래에 “이, 아지, 음” 붙어서 他 詞로 變하거나 뜻만이 變한 것은 口蓋音化音 有無를 勿 論하고 그 語根의 原形을 밝히어 적는다. 例:

(1) “이”가 붙어서 他詞로 變한 것

꽃꽃이 (處處) 날날이 (個個) 몹몹이 (每人分)

살살이 (每隊) 집집이 (家家) 앞앞이 (每前)

(2) “이, 아지, 음”이 붙어서 뜻만의 變한 것

공배말이 (曲臂人) 네눈이 (四目犬) 육손아 (六指人)

삼눈이 (三足鐵) 정목말이 (驚脚人) 애주눈이 (隻眼人)

막아지 (項) 막아지 (匏) “주음 (假蓋)

第 16 項. 名詞의 語根 아래에 “이, 아지, 음” 以外의 音이 붙어서 他詞로 變하거나 뜻만이 變한 것은 그 語根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 한다. 例:

마갈 (外邊) 사라주니 (股間) 지푸라기 (莖片)

꼬락질니 (虱) 꼬트미리 (蠅) 싸라기 (粒)

第 17 項. 名詞의 用言의 語根 아래에 子音으로 첫소리 들 같은 音節이 붙어서 他詞로 變하거나 뜻만이 變한 것은 그 名詞의 用言 語根의 原形을 밝히어 적는다. 例:

(一) 名詞의 語根 아래에 子音 音節이 붙어서

(1) 他詞로 變換한 것

값자다 (有價) 빛나다 (輝) 골치다 (簡單)
꽃당다 (芳)

(2) 同類의 變換한 것

고양이 (吹簫) 꽃재 (鑄工) 빛깔 (色態)
끝장 (終局) 옆대 (側近) 일꾼 (佃隸)

(二) 用韻의 語根 아래에 子音 音節이 붙어서

(1) 他詞로 變換한 것

남지 (釣針) 늙정어 (老物) 뜰계질 (解繩)

(2) 同類의 變換한 것

강아강아하다 (強) 굶다굶다 (飢大)
깊숙하다 (幽邃) 넓적하다 (頽廢)
늪다늪다 (濕潤) 활수그대하다 (活)
외죽외죽하다 (短痕) 일드러다 (伏)
얼얼하다 (澀) 울조리다 (吟)

[附註] 上記의 各은 그 語源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1) 同類 類의 끝소리가 따로 아니 나는 것

곧막하다 (未滿) 넓터당다 (甚廣) 넓적하다 (頽廢)
맑끔하다 (清潔) 맑출하다 (淸楚) 말창하다 (全滄)
실적하다 (頽廢) 수꿈하다 (厭患) 알팍하다 (稍潔)
물광 (朽敗) 울무 (薊)

(2) 語源이 不明하지 아니한 것

넓작하다 (平廣) 멀끔하다 (淸潔) 멀출하다 (滄)

덜끔하다 (全滿) 머쓱하다 (頭縮) 고달프다 (疲)
 고프다 (飢) 슬프다 (悲) 아프다 (痛)
 가쁘다 (慳) 구쁘다 (食金生) 예쁘다 (妍)

第 18 項. 用言의 語根에 “브”가 붙어서 他詞로 轉成한 것은 그 語根의 原形을 밝히여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甲 | 乙 |
|----------|-----|
| 긋브다 (辱) | 기쁘다 |
| 낯브다 (惡) | 나쁘다 |
| 믿브다 (可信) | 미쁘다 |
| 말브다 (忙) | 바쁘다 |

但, “不足하다”의 뜻으로는 “나쁘다”로 적는다.

第 19 項. 動詞의 語根에 “치”가 붙어서 힘줄을 나타내는 것은 語根의 原形을 밝히여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甲 | 乙 |
|---------|-----|
| 놓치다 (放) | 놓치다 |
| 달치다 (附) | 달치다 |
| 덜치다 (賤) | 덜치다 |
| 말치다 (支) | 말치다 |
| 뻗치다 (伸) | 뻗치다 |
| 얹치다 (覆) | 얹치다 |

第 20 項. 形容詞의 語根에 “히”나 “어”나 또는 “추”가 붙어서 動詞로 轉成한 것은 그 語根의 原形을 밝히여 적는다.

아.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甲 | 乙 |
|------------------|------------|
| 굳히다 (使—固) | 구치다 |
| 굽히다 (使—屈) | 구피다 |
| 긋히다 (使—凶) | 구치다 |
| 넓히다 (使—廣) | 넉피다 |
| 밝히다 (使—明) | 말키다 |
| 젓히다 (使—後傾) | 저치다 |
| 좁히다 (使—狹) | 조피다 |
| 높이다 (使—高) | 노피다 |
| 옥이다 (使—內曲) | 오기다 |
| <u>갖추다 (備)</u> | <u>가추다</u> |
| <u>낮추다 (使—低)</u> | <u>나추다</u> |
| <u>늦추다 (使—緩)</u> | <u>느추다</u> |
| <u>맞추다 (使—合)</u> | <u>마추다</u> |

第 21 項. 動詞의 語源의 原形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助詞로 轉成하여 語根과 떨어져나 것은 그 語源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 한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甲 | 乙 |
|-------------|----|
| 마져 (그 것 마저) | 맞어 |
| 부더 (오늘 부더) | 붙어 |
| 조차 (너 조차) | 좃아 |

第 22 項. “하다”가 붙어서 되는 形容詞의 語根에 “히”나 “이”가 붙어서 副詞나 名詞가 된 것은 그 語根을 밝히어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比격한다.)

(1) 副詞 詞, 詞

| 甲 | 乙 |
|----------|-----|
| 넉넉히 (充分) | 넉넉키 |
| 답답히 (鬱鬱) | 답답키 |
| 뚜렷히 (淸一) | 뚜렷키 |
| 똑똑히 (分明) | 똑똑키 |
| 바르히 (稍密) | 바르키 |
| 반듯히 (正平) | 반듯키 |
| 큼직히 (稍大) | 큼직키 |
| 깨끗히 (淸潔) | 깨끗키 |
| 쫘쫘히 (直長) | 쫘쫘키 |
| 굵직히 (太甚) | 굵직키 |

(2) 名詞 詞, 詞

| | |
|------------|------|
| 진진히 (眞眞) | 진진키 |
| 배골뽕 (高腹人) | 배골뽕키 |
| 코닐잡히 (平鼻人) | 코닐잡키 |

第 28 項 擬聲, 擬態的 副詞이나 “하디”가 붙지 아니 하는 語源의 語根에 “이”나 다른 소리가 붙어서, 名詞나 副詞로 된 것은, 그 語根을 批하여 적지 아니 한다. 例:

(1) 擬聲的 副詞 “이”가 붙어서 된 말

| | | |
|----------|------------|----------|
| 개구리 (蛙) | 귀뚜라미 (蟋蟀) | 기러기 (雁) |
| 나팔리 (胡笳) | 메미 (蟬) | 쟁과리 (鐙) |
| 찌르렁 (鶯) | 작나무리 (啄木鳥) | 싸꾸기 (布穀) |

(2) 擬態的 副詞에 “아”가 붙어서 된 말

두드리기 (搥樓) · 넘더기 (添積) · 더외기 (輕舉人)
무드러기 (癒疹) 무더기 (堆積) 살사기 (舒譏人)
칼썩두기 (切麵) 푸석기 (脫物) 작두기 (切根漬)
머미기 (眩暈人) 머두기 (易怒人) 이두기 (疏毛獸)

(3) “아다”가 아나 붙는 語根에서 된 말

갑두기 (倉卒) 동그라기 (圓形) 만드시 (必)
무스러기 (磨屑) 삼자미 (叉) 슬머시 (嚴然)
잠짜미 (寤約) 일짜기 (早)

第 24 項. 語源의 語根에 “아다”가 붙어서 用語가 된 單은 그 語根과 “아나”를 區別하여 적는다. 例.

급하다 (急) · 속하다 (速) · 착하다 (蕩)
꺾말하다 (鬱澁) · 독하다 (冬溫) · 막하다 (攔)

第 25 項. 語源의 語根에 “아다”가 붙어서 된 動詞나 形容詞은 그 語根을 밝히어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取한다.)

| 甲 | 乙 |
|----------|------|
| 정득이다 (靜) | 범프기다 |
| 민적어다 (閃) | 민적기다 |
| 움적히다 (動) | 움적기다 |

第 26 項. 動詞나 形容詞 語源의 語根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적어도 그 뜻이 아주만 달로 變上되는 語根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 한다. 例:

기두다 (收) · 고치다 (改) · 기르다 (養)

| | | |
|-----------|----------|-----------|
| 도리다 (挾) | 드리다 (獻) | 만나다 (逢) |
| 미루다 (轉地) | 마치다 (納) | 부치다 (寄送) |
| 점잖다 (儉) | 이루다 (成) | |
| 거탄지 (牛尻骨) | 고름 (膿) | 담오리 (壁下部) |
| 넙치 (廣魚) | 코끼리 (象) | 다리 (搥) |
| 도리끼 (蓮棚) | 목거리 (喉病) | 무너리 (初生獸) |

第 37 項. 用言의 語根에 “이, 이, 히, 기”가 붙을 時에 語根의 끝 音節이 그 “1, 1” 소리를 讀아서 다리 나는 일이 있을까라도, 그 本 母音을 다리 적지 아니한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리나다.)

| 甲 | 乙 |
|------------|-----|
| 꼭집이 (折項) | 꼭집이 |
| 막이웃 (縫縫衣) | 백이웃 |
| 먹이다 (使一食) | 백이다 |
| 막이다 (使一印刷) | 백이다 |
| 고이다 (示) | 괴이다 |
| 죽이다 (殺) | 척이다 |
| 파이다 (使一掘) | 패이다 |
| 깨이다 (使一解) | 개이다 |
| 뜨이다 (使一離) | 떠이다 |
| 막히다 (塞) | 백히다 |
| 막히다 (被一印刷) | 백히다 |
| 잡히다 (被一把) | 잡히다 |
| 맡기다 (使一任) | 맡기다 |

| | |
|-----------|-----|
| 벗기다 (使—脫) | 뺏기다 |
| 숨기다 (使—隱) | 쫓기다 |
| 뜰기다 (使—騎) | 뜰기다 |
| 꽃기다 (被—逐) | 쫓기다 |
| 안기다 (被—抱) | 안기다 |
| 옮기다 (移) | 옮기다 |

[附記] 이 境遇에 들어 슌하여 아주 單音節의 單 나는 것은 소리 대로 지는다. 例:(甲을 取하고 乙, 丙을 버린다.)

| | | |
|----------|-----|-----|
| 甲 | 乙 | 丙 |
| 내다 (使—出) | 내이다 | 내이다 |

第 28 項. 받치^ㅁ이 있는 動詞나 形容詞의 語根에 다음과 같은 接尾辭가 붙어서 單 獨立한 單語가 成立된 것은 그 接尾辭의 原形을 밝히어 적는다. 例:(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1) “양 (형) —”

| | | | |
|------|----------|------|------|
| 甲 | 乙 | | |
| 검양다 | 검엄다 (黑) | 가량다 | 거명다 |
| 늘양다 | 늘엄다 (黃) | 노량다 | 누명다 |
| 둥글양다 | 둥글엄다 (圓) | 몽그량다 | 몽그명다 |
| 빨양다 | 빨엄다 (赤) | 발장다 | 벌명다 |
| 편양다 | 편엄다 (背) | 피당다 | 피명다 |
| 싸늘양다 | 싸늘엄다 (冷) | 짜느량다 | 찌느명다 |

(2) “엄—”

| | |
|----------|------|
| 자질엄다 (瘳) | 갈지림다 |
|----------|------|

| | |
|-----------|------|
| 말썽하다 (情) | 미덥다 |
| 무슨말이다 (乘) | 무엇이다 |
| 지랄하다 (癡) | 지고르다 |
| 경군하다 (驚) | 경고르다 |
| 어찌하다 (亂) | 어저르다 |

(3)

| | |
|-----------|------|
| 부절없다 (漫然) | 부지없다 |
| 상없다 (悖常) | — |
| 사름없다 (愁克) | 사도없다 |

第 7 節 品詞 合成

第 29 項. 둘 이상의 語根이 複合할 때에는 소단 接變의 有
無를 勿論하고 각각 그 語根을 밝히어 적는다. 例:

(一) 소단이 複合지 아니 할 때.

(1) 子音과 子音 사이

| | | |
|----------|----------|----------|
| 국그릇 (國器) | 견잡다 (收拾) | 낮모다 (低視) |
| 낮잡다 (低視) | 동모다 (重視) | 만말 (蔓末) |
| 맞질 (對峙) | 밤낮 (晝夜) | 말물 (水食) |
| 꽃길 (花辰) | 옷속 (衣內) | 일말 (逸末) |

(2) 子音과 母音 사이

| | | |
|----------|----------|-----------|
| 잡알다 (穢亂) | 눈웃음 (目笑) | 물오르다 (水昇) |
| 물오리 (野鴉) | 밤알 (粟顆) | 살얼음 (凍水) |
| 속없다 (內虛) | 속옷 (內衣) | 손아귀 (拳內) |

손위 (手上) चुवि (厨瓜) 결없다 (無知)
 친어머니 (親母) 큰언니 (長兄) 혼아버 (餽夫)
 但, 語根이 不分明한 것은 그 原形을 밝히여 적지 아니
 한다. 例:

머칠 (幾日) 오라버니 (舅兄) 이틀 (二日)

(二) 소리가 變할 지

(1) 子音과 子音 사이

| | | |
|-----------|-----------|----------|
| 결나다 (怯) | 결늘다 (早白) | 죽말이 (猶假) |
| 굽두리다 (儼) | 말머느리 (長婦) | 맞딱다 (對等) |
| 몇날 (幾日) | (받네다 (受便) | 밤물 (炊飯水) |
| 방늘다 (放縱) | 빛나다 (鮮) | 첫물갈 (第指) |
| 칼날 (刀刃) | 홀몸 (單身) | 흙내 (土香) |
| 엿누르다 (甜壓) | | |

(2) 子音과 母音 사이

| | | |
|-----------|-----------|-----------|
| 값없다 (無價) | 값없다 (無魂) | 무릎아래 (膝下) |
| 부엌안 (厨內) | 맛음식 (雜飲食) | 젖어미 (乳母) |
| 첫아들 (初男) | 말안 (豆粒) | 웃웃음 (謙笑) |
| 꽃수 (單水) | 꽃아래 (花下) | 옷안 (衣內) |
| 웃오르다 (甜誇) | 웃어론 (屋上) | 웃웃 (外衣) |

[附記] 各品詞의 獨立한 소리 “ㄴ”가 變 소리로 變할
 것은 變할 때로 적어, 各 字音 區別하여 적는다. 例: (甲
 을 取하고 乙을 버리나다.)

甲

친아리자 (親父)

乙

친아버지

할머니 (祖母)

한 어머니

第 30 項. 두 韻母가 합하여 合成語가 될 적에 中間에 減하여지는 音이 있더라도 減하여지나 音을 略하여 적지 아니한다.

| | | |
|-----------|-----------|----------|
| 겨우살이 (冬生) | 달달이 (每月) | 마되 (斗升) |
| 마초 (牛馬) | 무자위 (唧筒) | 마느질 (針工) |
| 부나미 (火蟻) | 소나무 (松樹) | 차돌 (石英) |
| 화살 (弓矢) | 마님 (令女) | 싸걸 (米廩) |
| 여닫이 (開閉) | 모자라다 (不足) | |

第 31 項. 合成語의 字에서 위, 말의 末音이 母音이나 “ㄴ, ㄷ, ㅂ, ㄱ”인 때에 從來의 所謂 “사이 ㄴ” 소리가 나는 것과 아케, 말의 助音이 “야, 여, 요, 유, 이”인 때에 다시 口蓋音化한 “ㄴ”나 “ㄷ”소리가 나는 것을 모두 中間에 記音符 “, ”로써 表한다. 例:

(1) 所謂 “사이 ㄴ” 소리가 나는 것

| | | |
|-------------|------------|------------|
| 겨, 불 (激火) | 고, 집 (倉庫) | 그름, 달 (晦月) |
| 달, 빛 (月色) | 뒤, 간 (厨間) | 등, 불 (燈火) |
| 문, 간 (門間) | 배, 길 (舟緣) | 봄, 비 (春雨) |
| 손, 뽕 (手背) | 초, 불 (燭火) | 초생, 달 (朔月) |
| 코, 날 (鼻線) | 흙, 집 (土幕) | 이, 옴 (齒銀) |
| 줄, 대 (轉軸) | 날, 짐승 (飛禽) | 물, 걸 (擔架) |
| 줄, 보 (梁梁) | 물, 숨 (吸息) | 꿀, 짓 (螫蜂類) |
| 들, 돌 (力拔石) | 물, 부디 (煙嘴) | 들, 손 (鼎柄) |
| 들, 강지 (掛障子) | 걸, 짐승 (走獸) | 날, 숨 (呼吸) |

진'주 (門柱) 열'부채 (摺扇) 렬'손 (把手)

(2) 所謂 “자이사” 소리와 다시 口蓋音化한 “ㄴ”나 “ㄹ”

소리가 나는 것

| | | |
|------------|-----------|------------|
| 가망'이 (幼虱) | 갓'양 (冠絲) | 검'이불 (袷衾) |
| 공'일 (空亭) | 낮'일 (晝事) | 논'일 (畚事) |
| 낫'요삼 (鋤鋤器) | 담'오 (艇櫓) | 대'일 (竹葉) |
| 들'일 (野事) | 물'약 (水藥) | 담'옷 (小帽) |
| 밤'이슬 (夜露) | 밤'일 (夜工) | 밭'이랑 (田畦) |
| 비'잎 (柳葉) | 밭'이 (重齒) | 배'개'잇 (枕衣) |
| 부엌'일 (厨事) | 속'잎 (裏葉) | 치'옷 (粗綿) |
| 창'일 (槍鎗) | 채'연 (靴穗) | 총'연 (銃身) |
| 콩'잎 (豆飾) | 편'옷 (便帽) | 줄'이불 (單衾) |
| 꽃'잎 (花葉) | 아래'이 (下齒) | 앞'이 (前齒) |
| 앞'이마 (前額) | 어금'이 (牙齒) | 옷'입자 (衣主) |
| 이'불'잇 (衾衣) | | |

[附記] 漢字語로서 이에 準할 만한 境起에도 總音符로써 表할 수 있다. 例:

| | | |
|--------------|------------|------------|
| (1) 가'법 (加法) | 가'수 (加數) | 경리'과 (經理課) |
| 기'수 (奇數) | 기요'과 (機要課) | 내'과 (內科) |
| 대'수 (台數) | 도'수 (度數) | 리'과 (理科) |
| 서무'과 (庶務課) | 선'자 (書字) | 소아'과 (小兒科) |
| 수'자 (數字) | 자재'과 (資材課) | 제'법 (除法) |
| 총무'과 (總務課) | 치'과 (齒科) | 호'수 (戶數) |
| 외'과 (外科) | 우'수 (偶數) | |

| | | |
|----------|----------------|----------|
| 감'법 (減法) | 구'장'과 (口腔科) | 권'수 (卷數) |
| 문'자 (文字) | 산'보'인'과 (産婦人科) | 상'과 (商科) |
| 승'법 (乘法) | 잠'간 (暫間) | 한'자 (漢字) |
| 결'산 (決算) | 결'심 (決心) | 결'정 (決定) |
| 달'성 (達成) | 발'달 (發達) | 발'견 (發見) |
| 절'대 (絶對) | 필'시 (必是) | 활'동 (活動) |

(2) 관'절'염 (關節炎) 대'장'염 (盲腸炎)

第 32 項. 複合 名詞 字이에서 日 소리가 나 ㅎ 소리가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 | | |
|-----|----------|-------|
| (1) | 백'쌀 (白米) | 백'고'쌀 |
| | 좁'쌀 (粟米) | 조'고'쌀 |
| | 황'쌀 (黃米) | 화'고'쌀 |
| | 헝'쌀 (新米) | 해'고'쌀 |
| (2) | 수'개 (牡犬) | 수'고'개 |
| | 암'닭 (牝鷄) | 암'고'닭 |
| | 안'밖 (內外) | 안'고'밖 |

第 8 節 原詞과 接頭辭

第 33 項. 接頭辭와 原根이 이우'되'어 한 單詞을 이'를 附'는 ㅎ 소리가 發'生'하거나 아니 하'거나 그 各 原形은 完'히 記

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甲 | 乙 |
|-------------|------|
| 세, 놀얏다 (靑黃) | 센노탕다 |
| 서, 눈얼다 (深黃) | 심누렁다 |
| 세, 맑얏다 (靑淸) | 셈말글다 |
| 젓, 이기다 (爛捏) | 젓너기다 |

第 4 章 語彙에 關한 것

第 1 節 漢字語

第 34 項. 在來의 漢字 字典에 “.”로 달리나 字音은 모두 “卜”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甲 | 乙 |
|---------|----|
| 간친 (延親) | 간친 |
| 발해 (湖海) | 발해 |
| 사상 (思想) | 사상 |
| 자녀 (子女) | 자녀 |
| 차제 (次第) | 차제 |
| 환하 (吞下) | 환하 |
| 항상 (恒常) | 항상 |
| 아동 (兒童) | 아동 |

第 35 項. 在來의 漢字 字典에 “.”로 달리나 字音은 모두

“ㄷ”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립니다.)

| 甲 | 乙 |
|---------|-----|
| 개량 (改良) | 지량 |
| 내외 (內外) | 네티외 |
| 대용 (代用) | 티용 |
| 거래 (去來) | 거티 |
| 매일 (每日) | 미일 |
| 배양 (培養) | 비양 |
| 색채 (色彩) | 식치 |
| 재능 (才能) | 지능 |
| 제자 (冊子) | 치자 |
| 태생 (胎生) | 티싱 |
| 해변 (海邊) | 히변 |
| 애석 (愛惜) | 익석 |

第 36 項. “ㄷ, ㅌ, ㅍ, ㅊ, ㅌ”를 ㅌ로 읽으로 삼은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는 “ㄷ,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로 적되 “ㄷ”는 “ㅌ”으로 “ㅌ”는 “ㅌ”으로 고치니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립니다.)

| 甲 | 乙 |
|----------|----|
| 전답 (田畝) | 뎌답 |
| 조수 (鳥獸) | 도수 |
| 지구 (地球) | 디구 |
| 제제자 (弟子) | 메자 |
| 천지 (天地) | 턴디 |

| | |
|---------|----|
| 철도 (鐵道) | 철도 |
| 육무 (軀體) | 육무 |
| 체재 (體裁) | 체재 |
| 사회 (社會) | 사회 |
| 서류 (書類) | 서류 |
| 소년 (少年) | 소년 |
| 수석 (水石) | 수석 |
| 장단 (長短) | 장단 |
| 정중 (體重) | 정중 |
| 조선 (朝鮮) | 조선 |
| 중심 (中心) | 중심 |
| 차륜 (車輪) | 차륜 |
| 차자 (妻子) | 차자 |
| 초부 (樵夫) | 초부 |
| 추수 (秋收) | 추수 |
| 취객 (醉客) | 취객 |

第 37 項. “계, 테, 데”는 本音 대로 적고, “떼, 세, 제, 처, 폐”의 “워”는 “계”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 甲 | 乙 |
|-----|---------|----|
| (I) | 계산 (計算) | 계산 |
| | 계획 (計劃) | 계획 |
| | 자례 (謝禮) | 자례 |
| | 혜택 (惠澤) | 혜택 |

| | | |
|-----|---------|----|
| (2) | 먼데 (速缺) | 연데 |
| | 세계 (世界) | 세계 |
| | 제도 (制度) | 제도 |
| | 체류 (滯留) | 체류 |
| | 폐회 (閉會) | 폐회 |
| | 폐부 (肺附) | 폐부 |

第 28 項 “스, 지, 츠”를 聲符으로 삼은 “-”를 가지나 字音은 그 聲符대로 내는 것을 原則으로 삼고 “ㅣ”음으로 變하여지나 것에 限하여 “ㅣ”로 적는다. 例:

| | | |
|---------|---------|---------|
| 술하 (膝下) | 습관 (習慣) | 승리 (勝利) |
| 즉시 (即時) | 중인 (證人) | 증조 (曾祖) |
| 측량 (測量) | 광계 (履階) | |

“ㅣ”음으로 變하여지나 것

| | | |
|---------|---------|---------|
| 금질 (琴瑟) | 법칙 (法則) | 질척 (叱噤) |
| 편지 (編詩) | | |

第 29 項 “니, 모, 뽀”를 聲符으로 삼은 “-”를 가지나 字音은 그 聲符 “-”로 내는 것으로 原則을 삼는다. 例: (甲을 以하고 乙을 比리니다.)

| | |
|---------|----|
| 甲 | 乙 |
| 북방 (北方) | 북방 |
| 북풍 (北風) | 북풍 |
| 붕우 (朋友) | 붕우 |
| 품질 (品質) | 품질 |
| 북화 (燭燭) | 북화 |

침묵 (沈黙)

침묵

第 40 項. “회, 의”의 字音은 本音 대로 내는 것을 原則으로 삼는다. 例

희락 (喜樂) 희망 (希望) 유희 (遊戱)

회의 (會議) 의원 (議員) 의의 (意義)

第 41 項. “기, 의, 리, 의”로 달리나 字音은 “기, 비, 시, 치”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리나다.)

| | |
|---------|----|
| 기차 (汽車) | 기차 |
| 일기 (日氣) | 일기 |
| 악기 (樂器) | 악기 |
| 근비 (困憊) | 근비 |
| 석탄 (石炭) | 석탄 |
| 의중 (輜重) | 의중 |

第 42 項 “나, 너, 노, 누, 너”가 單語의 頭音으로 될 때에는 그 本音을 좇아 적되, 이를 “야, 여, 요, 유, 아”로 적지 아니 한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리나다.)

| 甲 | 乙 | 參考 |
|---------|----|----------|
| 녀자 (女子) | 여자 | 자녀 (子女) |
| 녕변 (寧邊) | 영변 | 안녕 (安寧) |
| 뇨도 (尿道) | 요도 | 수뇨관 (尿管) |
| 니토 (泥土) | 이토 | 설니 (雪泥) |

第 43 項. “르” 소리가 單語의 頭音으로 될 때에는 그 本音을 좇아 적되, 이를 “노”으로 고치거나 또는 省略하지 아

니 한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리나다.)

| 甲 | 乙 | 參考 |
|---------|----|---------|
| 낙원 (樂園) | 낙원 | 쾌락 (快樂) |
| 로인 (老人) | 노인 | 조로 (早老) |
| 루각 (樓閣) | 누각 | 고루 (高樓) |
| 릉묘 (陵墓) | 능묘 | 구묘 (丘陵) |
| 래일 (來日) | 내일 | 미래 (未來) |
| 뢰성 (雷聲) | 뇌성 | 우뢰 (雨雷) |
| 량심 (良心) | 양심 | 개량 (改良) |
| 역사 (歷史) | 역사 | 리력 (履歷) |
| 료리 (料理) | 요리 | 재료 (材料) |
| 류수 (流水) | 유수 | 하류 (下流) |
| 리론 (理論) | 이론 | 론리 (論理) |
| 례의 (禮儀) | 예의 | 의례 (儀禮) |

但, 어느 位置에 있어서나 “ㄱ” 소리를 아니 내는 말은 아
니 내는 대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리나다.)

| 甲 | 乙 |
|---------|----|
| 노예 (奴隸) | 노레 |
| 계족 (勸屬) | 계죽 |

第 44 項. 在來의 字典에 아무 規定이 없으면, 두 가지 音
을 가지나 字는 그 發音되는 대로 적는다. 例:

| | |
|---------|---------|
| 가택 (家宅) | 지택 (媳宅) |
| 당분 (糖分) | 사탕 (砂糖) |
| 동구 (洞口) | 동숙 (洞燭) |

| | |
|-----------|------------|
| 략신 (良辰) | 갑진 (甲辰) |
| 육일 (六日) | 유월 (六月) |
| 목재 (木材) | 모과 (木瓜) |
| 목관피 (牡丹皮) | 모란화 (牡丹花) |
| 서장 (書狀) | 상태 (狀態) |
| 십일 (十日) | 지월 (十月) |
| 제출 (提出) | 보리 (菩提) |
| 팔월 (八月) | 과일 (四月 八日) |

〔附記〕 “不” 字는 다음에 “ㄷ, ㅈ”를 頭音으로 삼은 音이
을 적에는 “부”로 적는다. 例:

- | | |
|---------------|-----------|
| (1) 무단 (不斷) | 부당 (不當) |
| 부도체 (不尊體) | 부도옹 (不倒翁) |
| 부동 (不動) | 부득불 (不得不) |
| (2) 무자연 (不自然) | 부적당 (不適當) |
| 무절 (不絕) | 부족 (不足) |
| 부주의 (不注意) | 부지중 (不知中) |

第 45 項. ㅈ 母音 사이에서 “ㄴ”가 “ㄹ”로만 發音되는 것은
“ㄹ”로 적고. “ㄹ”이 “ㄴ”로만 나는 것은 “ㄴ”으로 적는
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 | | |
|-------------|----|
| (1) 대로 (大怒) | 대노 |
| 리락 (許諾) | 허낙 |
| 회령 (會寧) | 회녕 |
| (2) 의논 (議論) | 의론 |

第46項. 두母音 사이에서 “ㄴ”이 “ㄹ”로도 나는 일이 있으되, 그 것을 本音 대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甲 | 乙 |
|---------|----|
| 기념 (紀念) | 기렴 |
| 기능 (技能) | 기렁 |

第47項. 漢字音이 連發할 적에 “ㄴㄴ”을 “ㄹㄹ”로 내거나, “ㄴㄹ”을 “ㄹㄹ”로 내거나, “ㄹㄴ”을 “ㄹㄹ”로 내는 일이 있을찌라도, 이를 本音 대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甲 | 乙 |
|-------------|----|
| (1) 곤난 (困難) | 골단 |
| 관념 (觀念) | 관렴 |
| 만년 (萬年) | 말련 |
| (2) 관리 (管理) | 팔리 |
| 천리 (千里) | 철리 |
| (3) 발노 (發怒) | 발로 |
| 말년 (末年) | 말련 |

第 2 節 略語

第48項. 말의 끝 音節의 母音이 줄어지고 子音만 남은 것은 그 뒤 音節에 받치므로 받치어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본 말 | 甲 | 乙 |
|-------------|------|------|
| 아기야 (小兒) | 학아 | 아가 |
| 기러기야 (雁) | 기러아 | 기러가 |
| 애꾸눈이야 (隻眼人) | 애꾸눈아 | 애꾸눈나 |
| 이제저녁 (昨夕) | 잇저녁 | 어저녁 |
| 어제그저께 (數日前) | 엇그저께 | 어그저께 |
| 까마귀까치 (烏鶻) | 까막까치 | 까따까치 |
| 가지고 (持) | 갖고 | 갖고 |
| 미치고 (及) | 밧고 | 밧고 |
| 디디고 (踏) | 딛고 | 딛고 |
| 온가지 (各種) | 온갖 | 온갖 |

第 49 項. 토만이나 또는 로와 名詞가 함께 줄어지나 것은 그 소리 대로 적는다. 例:

| 본 말 | 줄나 말 |
|----------|------|
| 나는 (我) | 난 |
| 나를 (我) | 날 |
| 너는 (汝) | 넌 |
| 너를 (汝) | 널 |
| 무엇이 (何) | 무에 |
| 그것이 (其) | 그개 |
| 무엇을 (何) | 무얼 |
| 그것으로 (其) | 그걸로 |

第 50 項. 母音으로 끝난 語幹의 밑에 “이, 아, 어”가 와서 어우름 적에는 줄나 대로 적을 수도 있다. 例:

| | 본 말 | | 줄나 말 | |
|-----|--------------|------|------|-----|
| (1) | 뜨이다 (使—離) | | 뜨이다 | |
| | 쓰이다 (使被—書,用) | | 쓰이다 | |
| (2) | 가아 (去) | 가았다 | 가 | 갔다 |
| | 서어 (立) | 서었다 | 서 | 섰다 |
| (3) | 보이어 | 보이였다 | 피어 | 피였다 |
| | 뜨이어 | 뜨이였다 | 피어 | 피였다 |
| | 쓰이어 | 쓰이였다 | 찍어 | 찍였다 |

第51項. 語幹의 끝音節 “하”의 “나”가 줄어지리 때에는 “중”을 中間에 놓으을 原則으로 하고, 또 뒤 音節에 받침으로 許容한다. 例: (甲을 原則으로 하고 乙도 許容한다.)

| 본 말 | 甲 | 乙 |
|-----------|------------|------|
| 가하다 (可) | 가중다 | 갔다 |
| 다정하다 (多情) | 다정중다 | 다정다 |
| 부지런하다 (勤) | 부지런중다 | 부지름다 |
| 정결하다 (精潔) | 정결중다 | 정결다 |
| 흔하다 (多) | 흔중다 | 흔다 |
| 아니하다 (不) | 안중다(안하다)않다 | |

第52項. 다의 말들은 그 語源的 原形을 밝히지 아니 하고 소리 대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甲 | 乙 |
|--------|----|
| 결코 (決) | 결고 |

하마더면 (幾平) 하말더면

第 53 項. 複合名詞 사이에 있는 “의” 르는 이를 省略할 수 있다. 例:

| | |
|------------------|------|
| 본 말 | 줄나 말 |
| <u>닭의 알</u> (鷄卵) | 닭알. |
| 소의 고기 (牛肉) | 소고기 |

第 3 節 標準語

第 54 項. 무릇 어떠한 品詞를 勿論하고 한 가지 뜻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 以上 있음을 特別한 境遇에만 認定한다. 例:

| | | |
|----|----|--------|
| 서말 | 석섬 | 세개 (三) |
| 너말 | 너자 | 네치 (四) |

第 55 項. 一定한 語根이나 語幹의 音이 脱落되거나 혹은 韻소리가 더하여 한 品詞로 익어 버리나 것은 그 語根이나 語幹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 | | |
|-----------|-----------|-----------|
| 겨드랑이 (腋) | 너모죽하다 (廣) | 너비 (幅) |
| 다습 (獸五歲) | 대여섯 (五六) | 매듭 (結節) |
| 무적하다 (後重) | 뫼 (東) | 버트장이 (習慣) |
| 소맹 (鼎蓋) | 커다랗다 (甚大) | 여드레 (八日) |
| 여나문 (十餘) | 여습 (獸六歲) | 예닐곱 (六七) |
| 이레 (七日) | | |

第 56 項. 用言이 活用할 時에 그 語幹의 終 音節의 母音에 따라 그 接續 形과 過去形 形 母音과 같이 적는다.

(語幹의 終 音節의 母音) (ㄷ)

- (1) ㄱ) ㅏ, ㅑ 아, 았
- ㄴ) - (앞에 ㅏ, ㅑ 가 올 時) 아, 았
- (2) ㄱ) ㅓ, ㅕ 어, 었
- ㄴ) - (一 音 節인 時) 어, 었
- ㄷ) - (앞에 ㅓ, ㅕ, ㅗ, ㅛ 가 올 時) ... 어, 었
- (3) ㅌ, ㄴ, ㄹ, ㄱ, ㅋ, ㆁ, ㄷ, ㅌ, ㄴ, (하) 여, 었

例:

(1) “아”로 할 時

| | | | |
|------|---------|----|-----|
| ㄱ) ㄴ | 닿다 (擔) | 닿아 | 닿았다 |
| | 막다 (防) | 막아 | 막았다 |
| | 얕다 (薄) | 얕아 | 얕았다 |
| | 근다 (筋) | 근아 | 근았다 |
| | 좋다 (好) | 좋아 | 좋았다 |
| ㄴ) ㄴ | 따르다 (隨) | 따라 | 따랐다 |
| | 사르다 (燒) | 사라 | 사랐다 |
| ㄷ) ㄴ | 고르다 (籠) | 고피 | 고팠다 |
| | 오르다 (登) | 오라 | 오랐다 |

(2) “어”로 할 時

| | | | |
|------|--------|----|-----|
| ㄱ) ㄴ | 꺾다 (撓) | 꺾어 | 꺾었다 |
|------|--------|----|-----|

| | | |
|------------|-----|------|
| 꺾다 (摺) | 꺾어 | 꺾었다 |
| 풀다 (解) | 풀어 | 풀었다 |
| 승리 (隊) | 승어 | 승었다 |
| ㄴ) 굵다 (擗) | 굵어 | 굵었다 |
| 크다 (大) | 크어 | 크었다 |
| ㄹ) 해뜨다 (曷) | 해뜨어 | 해뜨었다 |
| 예쁘다 (妍) | 예쁘어 | 예뻤다 |
| 구르다 (食念生) | 구르어 | 구르었다 |
| 슬프다 (悲) | 슬퍼 | 슬펏다 |
| 치르다 (經) | 치르어 | 치렀다 |

(3) "어"로 할 경우

| | | |
|--------|----|-----|
| 끼다 (挾) | 끼어 | 끼었다 |
| 피다 (撥) | 피어 | 피었다 |
| 개다 (晴) | 개어 | 개었다 |
| 세다 (強) | 세어 | 세었다 |
| 되다 (化) | 되어 | 되었다 |
| 쉬다 (休) | 쉬어 | 쉬었다 |
| 희다 (白) | 희어 | 희었다 |
| 하다 (爲) | 하어 | 하었다 |

但,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어"로

| | | |
|--------|----|-----|
| 집다 (植) | 집어 | 집었다 |
| 맺다 (結) | 맺어 | 맺었다 |
| 잡다 (作) | 잡어 | 잡었다 |

第 57 項. 詞幹의 끝 音節이 “스, 지, 츠”의 말소리므로 끝났을 적에는 ㅁ의 “—” 소리가 “ㅣ”로 나는 일이 있으나, 이것은 모두 “—”로 統一한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비립니다.)

| 甲 | 乙 |
|---------|-----|
| 벗으니 (脫) | 벗이네 |
| 있으니 (有) | 있이네 |
| 갖은 (具備) | 갖인 |
| 꽃은 (國) | 꽃인 |
| 앉으니 (坐) | 앉이네 |
| 좃으니 (從) | 좃이네 |
| 좃으니 (送) | 좃이네 |

第 58 項. 純 朝鮮語나 漢字語나 勿論하고 副詞의 끝 音節이 “히”와 “이”로 相同된 例에 限하여 그 말이 語源의 으로 보아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것은 “히”로 하고 그 樣지 아니 한 것은 “이”로 지는다. 例:

(1) “히”로 한 것

| | | |
|----------|----------|----------|
| 가치던히 (齊) | 고요히 (靜) | 나만히 (整) |
| 넉넉히 (潔白) | 내망히 (當) | 부끄러히 (慙) |
| 튼튼히 (堅固) | 흔히 (尋) | 같은히 (如一) |
| 가히 (可) | 간히 (敢) | 귀히 (價) |
| 능히 (能) | 분명히 (分明) | 속히 (速) |
| 습히 (習) | 자연히 (自然) | 장히 (壯) |
| 쾌히 (快) | 쾌히 (快) | 열렬히 (熱烈) |

열심히 (熱心)

(2) "이"로 할 때

곳곳이 (處處)

기대어 (期必)

나날이 (每日)

번번이 (每每)

집집이 (家家)

젓되이 (廣)

일일이 (一一)

일일이 (事事)

[附記] 分明히 "히"나 "이"로만 나는 것은 나는 대로 적는다. 例:

(1) "히"로만 나는 것

작하 (小)

(2) "이"로만 나는 것

너부족이 (平廣)

적어 (少)

큼적어 (稍大)

지긋이 (稍緩)

따뜻이 (暖)

뚜렷이 (明瞭)

[附記] 分明히 "히"나 "이"의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은 上記 規定에 맞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말을 버린다. 例:

取할 것

버리르 것

담담히 (穩穩)

담담이

침침히 (愜愜)

침침이

똑똑히 (分明)

똑똑이

第 59 項. "이요"는 接續形이나 終止形이나 다 "이요"로 하고, "지요"는 "지요"로 한다. 例:

(1) 이것은 무엇이요, 저것은 먹이요, 또 저것은 소요.

(2) 갈 자담은 가지요.

第 4 節 外 來 語

第 60 項. 朝鮮語에 同化된 外來語를 表記할 時에는 다음의 條件을 原則으로 한다.

(1) 새 文字나 符號를 쓰지 아니 한다.

(2) 表音主義를 取한다.

外國語를 表記할 時에는 語音學 符號에 使用되는 文字를 使用할 수도 있다.

第 5 章 文章에 關한 事

第 1 節 의아 쓰기

第 61 項. 單語는 各各 的인 的인 助詞는 句 말에 붙이어 쓸 수 있다. (但, 文字 改革時에는 새로운 規定에 依한다).
例:

(1) 文章과 單語

어제 밤나무를 찍었소.

어제 밤 나무를 찍었소.

(2) 體言, 用言의 助詞

나는 사람도 우리만

임으로는 말으로도 너조차

(3) 副詞의 助詞

잘도 같은 같아야 잘만

빠르도 빠르느 빠르야 빠르만

그다지도 적은 늘어야 멀리만

但, 文章의 앞뒤 關係에 依하여 特別히 必要한 境遇에 是
單語를 適當히 붙이여 쓰는 許容한다. 例:

| 原則 | 許容 |
|----------|---------|
| 이 곳 저 곳 | 이곳 저곳 |
| 제 이십 일 항 | 제 이십 일항 |
| 좀 더 싸우자 | 좀더 싸우자 |
| 저녁 잠 | 저녁잠 |

第 62 項. 數를 우리 글로 적을 때에는 十進法에 依하여 써
여 쓴다. 例:

일만 삼천 구백 오십 관

第 63 項. 둘 以上 單語로 된 固有 名詞는 그 各 單語를 띄
여 쓴다. 例:

리순신 자강도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일인민학교

第 2 節 符 號

第 64 項. 文章에 쓰는 符號는 大概 다음과 같이 定한다.

- 1) 終止符 . 文章의 끝남을 보이려 때 쓴다.
- 2) 中止符 : 한 文章이 大體로 끝나면서 다음 文章과 意
味上 連絡점을 보이려 때 쓴다.
- 3) 停留符 ; 意味가 좀 中斷되므로 읽을 적에 잠간 쉬어
머무려야 할 자리에 쓴다.
- 4) 休息符 , 意味가 좀 中斷되므로 읽을 적에 잠간 쉬는
것이 좋려 자리에 쓴다.

- 5) 疑問符 ？ 疑心이 나 뜻을 나타낼 때 그 말의 다음에 쓴다.
- 6) 感嘆符 ！ 느끼거나 부르짖음을 나타낼 때 그 말의 다음에 쓴다.
- 7) 專稱符 “ ” 다른 말을 따라갈 때 그 말의 앞뒤에 가탁서 쓴다.
- 8) 內引用符 ‘ ’ 다른 말을 따라가 쓰는데 그 안에 또 다른 말을 붙여 쓰는 것이 있을 때 그 붙여 쓰는 말의 앞뒤에 가탁서 쓴다.
- 9) 接合符 — 單語의 끊이지는 자리물, 용이 붙이는 뜻을 보이게 쓴다. 한 單語가 두 말에 걸쳐 있어 지히리 경우는 위 줄의 끝에 쓴다.
- 10) 標語符 < > 두 자 혹은 두 말을 거듭할 때 그 거듭 쓰는 데 쓰인다.
- 11) 括弧 (), 《 》, { }, [] 어떻게 부분을 한 덩이로 묶을 때 이를 各各 適當히 쓴다.

朝鮮語 新綴字法 (끝)

1950년 4월 15일 발행

조선어 신철자법 (값 8 원)

편찬 조선어문연구회
발행 조선어문연구회
평양시 원천리 2번지

인쇄 대동출판사 인쇄소
평양시 지리 232번지